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IMF, 미국 경제 성장 상향 조정...유럽과 캐나다는 낮춰
- Bloomberg: 미 산업 생산 예상 초과... 제조업 안정
- WSJ: 신임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인플레이 문제로 금리 인하 늦출 필요”

[미국 금융]

- CNBC: 모기지, 크레딧 카드, 자동차 융자 이자율 어떻게 되나?
- Bloomberg: 미중 무역관계 회복 기대 가운데 기술주 상승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이후에 감세한다
- Bloomberg: 트럼프 행정부, 중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에 대응 준비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착공, 예상치 초과... 다주택 크게 증가

[에너지]

- Bloomberg: 트럼프, LNG 신규 수출 허가 재개

[전기차]

- Bloomberg: 미국 전기차 충전기 공유 문화 확산
- Bloomberg: 전기차 판매 부진... 회사들 전기차 전환 일부 재검토

[글로벌 경제]

- WSJ: 세계 경제, 안정적이지만 느린 성장 예상돼
- CNNBusiness: 중국 경제 예상 외 성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 위협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까르띠에부터 타겟까지, 연말연시 매출 증가
- Bloomberg: 카타르 항공 “전자상거래가 화물 비즈니스 10% 성장시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Growth Projections Revised Up by the IMF

IMF, 미국 경제 성장 상향 조정...유럽과 캐나다는 낮춰

- IMF는 올해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을 앞서면서 팬데믹과 인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IMF는 올해 미 경제 성장 예상치를 작년 10월의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유럽 국가와 캐나다의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 IMF는 미국 경제의 강한 생산력 증가, 둔화되지만 여전히 유연한 노동시장,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효과적인 대응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 IMF는 2024년 미 경제 성장률이 2.4%라고 밝혔다. 2023년은 2.9%였다. 2024년 유럽 성장률은 대부분 0.8%에 머무르는 것으로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US Industrial Output Tops Forecasts as Manufacturing Stabilizes

미 산업 생산 예상 초과... 제조업 안정

- 미국의 산업 생산이 12월에 예상보다 상승했다. 과거 2년간의 약세를 딛고 제조 활동이 안정화되면서 생산량이 상승했다.
- 오늘 금요일, 연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와 채굴, 유틸리티 생산이 0.9% 상승해 지난 2월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12월 증가율은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조사 예상치를 모두 초과했다.
- 제조 생산은 0.6% 상승해 지난 8월 이래 가장 컸다. 보잉사의 파업 해결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재와 건축 자재 생산도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WSJ: 'We Still Have an Inflation Problem.' A Fed Newcomer Wants to Go Slow on Rate Cuts.

신임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인플레 문제로 금리 인하 늦출 필요”

- 골드만 삭스에서 재무 책임자로 있다가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된 Beth Hammack는 작년 12월 연준의 0.25% 금리 인하 때 반대표를 던졌다.
- 그는 최근에도 미 경기는 인플레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그는 “수년 전보다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 인플레 문제가 진전되기는 했으나 우리는 계속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향후 수십년 후에는 2020년대의 초저금리가 정상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BC: Mortgages, credit cards, auto loans: Expert predictions for interest rates in 2025

모기지, 크레딧 카드, 자동차 용자 이자율 어떻게 되나?

- 연준은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Bankrate의 선임 금융 분석가인 Greg McBride는 대부분 종류의 소비자 용자 이자율이 올해 말까지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19.8%로 낮아지고, 모기지율은 6.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용자는 7%로 떨어지고, 고수익 저축 금리는 4%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NBC 기사

Bloomberg: Stocks Get Tech Boost Amid US-China Trade Optimism: Markets Wrap

미중 무역관계 회복 기대 가운데 기술주 상승

- 글로벌 기술주들이 오늘 금요일 증시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채권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의 최근 전화 통화가 양국간의 무역 관계를 완하시킬 수 있다는 헤드라인이 랠리를 부추겼다.
- S&P 500은 거의 1%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1.7%, 그리고 다우존스는 0.7% 상승했다. 블룸버그의 매그니피센트 7의 지수는 1.8% 상승했다. 러셀 2000도 1% 올랐다.
- 10년물 국채금리는 3베이시스포인트 낮아진 4.59%에서 거래중이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0.3%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1만2천불을 기록중이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Trump's Own Plans Stand in the Way of Repeating His Economic Success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이후에 감세한다

- 정책 시행의 순서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감세 다음에 관세를 부과했었다. 이에 따라 관세 인상의 부정적인 조치가 시행될 때 이미 경제가 안정된 상황이었다.
- 이번에는 정책 순서가 거꾸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감세 정책의 규모에 비해 관세 인상 조치는 규모가 클 수 있다. 이는 경기 침체기의 '처방전'처럼 보일 수 있다.

- ‘트럼프의 경제 어젠다는 초기에는 경제에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올해 말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Longview Economics는 메모에서 밝혔다. 또한 관세는 높은 유가처럼 소비자들에 게 세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 기사

Bloomberg: Trump Gets New Tool to Fight China With Findings on Shipbuilding

트럼프 행정부, 중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에 대응 준비

- 미 무역부(USTR)는 중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부당한 혜택을 주고, 미국의 경쟁업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USTR은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은 부당하고, 외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고, 시장 중심의 비즈니스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이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고 공급망의 유연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using Starts Top All Forecasts on Multifamily Construction

미 주택 착공, 예상치 초과... 다주택 크게 증가

- 오늘 금요일 발표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 주택 착공이 2024년 초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신규 주택 건설은 거의 16% 증가해 작년보다 150만 채 증가했다.
- 신규 주택 건설 대부분이 단독 주택으로, 작년보다 105만 채 증가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3.3% 증가한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다가구 건설도 62% 증가했다. 이는 Bloomberg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의 모든 예상치를 초과한 수치다.
-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작년 신규 주택 건설은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모기지율이 1년 내내 6% 이상을 유지했고, 현재는 7%를 넘어 서며, 주택 구매 여력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 계약 취소가 증가하고, 향후 6개월 내 전망이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Bloomberg: Here Are the LNG Projects Set to Advance If Trump Lifts Freeze

트럼프, LNG 신규 수출 허가 재개

-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LNG 신규 수출 허가 중단을 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 공약으로 미국 기업들은 다시 유럽과 중국에 LNG 수출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 1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가스 전송 계약 만료로 생긴 공급 공백 덕분에 수출 기회가 커진 상황이다.
- 2024년 1월, 바이든 행정부는 LNG 신규 수출 허가를 중단하면서 여러 주로부터 법적 도전을 받았다. 트럼프도 신규 수출 허가를 재개하면서 화석 연료 투자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의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Bloomberg: EV Charging Deserts Are Gone, But Plug Sharing Has Never Been More Popular

미국 전기차 충전기 공유 문화 확산

- 최근 몇 년 동안 자택에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개인 가정이 늘어났다.
- 공공 충전 인프라를 지도로 만드는 플랫폼 PlugShare는 2020년 이후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가정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약 3만1천 개 가정이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전기차 충전기 공유 문화 확산을 주도한 것은 새로 전기차를 구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도심에 자택 충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 운전자들끼리 서로 돕기 위해 충전기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 ChangeLab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의 약 14%가 자택에 충전기가 없고, 3분의 2는 공공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사람들이 충전소 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Electric Vehicle Sales Have Stumbled. What Went Wrong?

전기차 판매 부진... 회사들 전기차 전환 일부 재검토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는 도로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가솔린과 디젤을 이용하는 차량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 탄소 중립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수년 동안 정부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제공했다.
-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수요 촉진을 위해 공장을 건설하고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다. 가격 하락, 기술 개선으로 전기차는 빠르게 성장했었다.
-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전기차 전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을 축소했으며,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일부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 2025년은 전기차 전환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Global Economy to Record Steady But Weak Growth, Limiting Catch-Up, Warns World Bank 세계 경제, 안정적이지만 느린 성장 예상돼

- 세계은행이 2025년과 2026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측했다. 작년과 동일한 성장률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평균 성장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 세계은행은 2025년 미국 성장률은 1.8%에서 2.3%로, 중국은 4.1%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개발도상국 성장률은 4%에서 3.8%로 하향 조정됐다.
-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장기 전망이 21세기 초 이후 가장 나쁘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 부수석 이코노미스트 Ayhan Kose는 “지금 성장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지금의 새로운 평균 성장을 정상 상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WSJ 기사

CNNBusiness: China's economy grows more than expected. But fears of Trump tariffs loom 중국 경제 예상 외 성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 위협

- 중국 경제가 2024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예상보다 크게 성장했다. 4분기 동안 중국 GDP는 5.4%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5% 성장을 예상했다.
-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 작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거의 1조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
- 그러나 중국의 무역 흑자는 트럼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할 것이며,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차단될 때까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2025년 중국 성장률이 4.5로 둔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약한 소비자 신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CNN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From Cartier to Target, Investors Find Cheer in Holiday Spending
까르띠에부터 타겟까지, 연말연시 매출 증가

- 이번 연말연시 까르띠에 보석부터 타겟 장난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 미 상무부는 자동차, 가스, 식당을 제외한 2024년 11월과 12월 소매 판매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9천4백91억 달러라고 밝혔다.
- 높은 인플레이와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이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수요가 2020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 또한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기 전에 상품을 비축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고가 품목을 미리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 Moody's Ratings의 소매업 분석가 Mickey Chadha는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E-Commerce Boom to Drive 10% Freight Growth, Qatar Airways Says
카타르 항공 “전자상거래가 화물 비즈니스 10% 성장시켜”

- 카타르 항공 화물부는 빠른 배달을 원하는 쇼핑객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항공 화물이 올해 10% 성장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 둔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카타르 항공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는 작년에 25% 성장했다. 올해는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반도체와 소비자 제품도 앞으로 밝은 전망을 보일 것이며, 카타르 항공의 전체 화물 공급 능력이 5%에서 10%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항공사의 책임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행태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WB, 올 세계 경제성장률 2.7%..."트럼프 보편관세시 0.3%p 감소"
세계은행 경제전망..."트럼프 감세·연장시 내년 美 경제성장률 0.4%p 증가"**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전망치보다 0.3%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은행(WB)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